

F-09 중장년 대상 투자사기와 자산보호

퇴직금·연금·부동산 자산을 노리는 사칭·고수익·원격제어 요구에 공동 대응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퇴직금과 노후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기관·전문가·지인을 사칭한 투자권유와 손실회복 미끼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족의 선의가 금융통제로 바뀌지 않도록 지원절차도 함께 정합니다.

확정수익·원금보장·비밀유지·사람모집·추가입금·원격제어 요구는 멈춤 신호입니다. 본인이 정한 지원자는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 확인과 기록을 돕는 사람입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손실회복 미끼

기존 손실을 되찾게 해준다면 추가입금·대출·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.

생활 예: 피해환급을 위해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.

불법 투자권유 신호

확정수익·비공개정보·사람모집·즉시송금처럼 정상확인을 막는 요구입니다.

생활 예: 계약서보다 단체대화방 수익인증을 강조합니다.

지원자 원칙

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며 확인·기록만 돕는 범위입니다.

생활 예: 송금과 계약은 본인이 이해한 뒤 결정하고 지원자는 공식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추가송금·대출·앱 설치를 멈춘다
- 2단계. 판매자·상품·인가·공시를 공식 채널에서 확인한다
- 3단계. 지원자와 함께 계약·대화·거래기록을 보존한다
- 4단계. 금융회사·수사기관·감독기관에 피해유형을 알린다
- 5단계. 계정·인증·대리권을 필요한 범위로 다시 설정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상품·판매자·권리를 공식 원문에서 각각 확인한다

반대 접근: 수익인증과 유명인 사진이 많으므로 신뢰한다

이유: 화면과 신분은 조작될 수 있고 투자권리는 공식 문서와 거래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지원자는 본인의 결정을 돕고 권한범위를 기록한다

반대 접근: 가족이 사고방지를 위해 모든 계정과 자금을 가져간다

이유: 보호를 이유로 한 과도한 통제도 경제적 학대와 권리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 투자권유 대화에서 위험신호를 표시하고 본인·지원자·금융회사·경찰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
-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투자권유를 받았을 때 함께 공식 확인할 지원자 한 명을 정합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수칙

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250>

한국인터넷진흥원 피싱·원격제어 대응

<https://www.boho.or.kr/kr/bbs/view.do?bbsId=B0000133&menuNo=205020&nttId=72078&pageIndex=1>

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안내

<https://www.fss.or.kr/>

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

<https://www.police.go.kr/>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